

함께 먹고 함께 자라는 여성들

— 『쓰웨이가 1번지』의 공간·음식·백합 서사와 다시 쓰는 역사

진성희*

목 차

1. 타이완 당대 문학 지형도와 양창쯔의 소설
2. 여성들의 대화로 길어 올리는 타이완의 과거
3. 적산가옥의 재전유 - 『쓰웨이가 1번지』의 공간과 역사의 재구성
4. 일상의 감각으로 쓰는 퀴어 서사: 음식과 여성 연대
5. 백합으로 역사를 다시 쓰기

국문초록

타이완의 작가 양창쯔(楊雙子)의 장편소설 『쓰웨이가 1번지(四維街一號)』(2023)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적산가옥을 배경으로, 각자 다른 환경의 여성 대학생들이 백여 년 전의 요리책 레시피를 함께 구현하며 연대와 성장을 이루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식민지 시대의 잔재인 공간이 여성들의 다층적 소통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 재전유되는 것과,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행위가 단순한 일상을 넘어 식민 시대 타이완의 문화적 기억을 현재와 잇는 역사적 협상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쓰웨이가 1번지』는 이성애 규범성에 대항하는 퀴어 서사의 고전적 문법 대신, 공간과 음식의 공유를 통한 연대의 축적으로 여성 간 관계성을 유동적으로 구성하는 백합적 감수성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소설은 역사와 백합 장르의 결합으로 남성 중심적·이성애 규범적 역사 서술이 비가시화한 여성들의 삶을 복원하는 문학적 성취를 획득하게 된다.

*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연구중점 부교수

키워드 : 양쌍쯔(楊雙子), 『쓰웨이가 1번지(四維街一號)』, 공간, 음식, 여성 간 연대, 백합, 역사 다시 쓰기

1. 타이완 당대 문학 지형도와 양쌍쯔의 소설

지난 세기 타이완과 한국은 일제강점기, 독재와 반공 정치, 민주화 항쟁을 거쳐 민주정권을 수립하고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유사한 역사 과정을 공유한다. 이러한 역사적 유사성은 줄곧 타이완에 대한 친밀감을 선사해왔으며, 최근에는 고정된 관습과 관념의 경계를 넘나드는 타이완 당대 문학을 향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타이완이 주빈국으로 선정되어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를 꾸리고 티켓 15만 장이 사전에 매진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한국 문학지 「릿터」(2025.2·3월호) 역시 타이완 당대 문학의 새로운 지형도를 조명하는 기획 기사를 게재했다.

그간 타이완 문학은 식민과 탈식민, 민주화의 경험에서 획득한 집단의 에너지를 드러내고,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 및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혼재하는 환경 속 정체성 문제를 성찰해왔다. 이러한 지형도는 2010년대 이후 변화한다. 다양한 젠더 감수성과 성 정체성을 가진 작가들이 민족·언어·성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개인과 집단 사이의 문제를 탐구하는 가운데, 여성과 성 소수자, 내성인과 이민자의 삶을 다루는 소설들이 증가하며 독특한 문학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타이완 퀴어 문학의 대표주자 천쓰홍(陳思宏)의 『귀신들의 땅(鬼地方)』(2019)과 『68번째 천산갑(第六十七隻穿山甲)』(2023)은 다수의 국가에서 번역되며 타이완 퀴어 문학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렸다. 천쉐(陳雪)는 1980년대부터 레즈비언의 삶과 사회적 관계에 주목해왔으며, 류즈위(劉芷妤)는 단편 소설집 『여신 뷔페(女神自助餐)』(2020)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사회의 폭력 속에 놓인 타이완 현대 여성의 고뇌를 담아 여전한 가부장제를

고발한다. 장자상(張嘉祥)은 소설과 음악을 타이완어로 창작하며, 정규 교육을 받을수록 타이완어를 할 수 없게 되는 복잡한 언어적 현실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당대 작가들은 소수자와 여성의 일상, 역사적 상황과 언어 정체성이라는 중층적 문화 현실을 형상화한다. 작품의 주체는 주로 여성·퀴어·이주자이며, 이들은 고정된 정체성의 기표를 거부하며 중심 사회로부터 미끄러져 나간다. 소설 속 식민·이주·민족의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언어들의 혼재는 타이완 사회의 혼종성을 가능하게 하며, 아시아 최초의 동성혼 합법화라는 역사적 조건은 타이완 사회의 다양성 지향을 보여준다. 이처럼 경계를 유연히 넘나드는 당대 타이완 문학의 특징은 양쌍쯔와 『쓰웨이가 1번지(四維街一號)』(2023) 분석의 참조 체계가 된다.

양쌍쯔(楊雙子)는 『1938 타이완 여행기(臺灣漫遊錄)』(2020)로 2024년 타이완 작가 최초로 전미도서상 번역 부문을 수상하고, 같은 해 일본 번역 대상 수상 및 2026년 부커인터내셔널 후보작 선정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명 양뤄즈(楊若慈)인 그녀는 1984년 타이중 출생으로, 쌍둥이 여동생 양뤄후이(楊若暉)와 함께 ‘양쌍쯔’를 필명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역사 고증과 일본어 자료 번역을 주로 담당하던 양뤄후이가 2015년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양쌍쯔는 홀로 필명을 이어가며 창작을 계속하고 있다. 스스로 레즈비언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그녀는 소수자의 시각이 세계를 달리 보는 시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창작 태도를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한다.

『쓰웨이가 1번지』는 양쌍쯔의 문학 세계를 잘 보여주는 최근작이다. 소설은 일본 식민 지배 시기에 세워진 적산가옥에서 네 명의 여성 대학원생과 집주인 여성이 공동생활을 하며 일어나는 사건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녀들은 이 세어하우스에서 타이완 조선총독부 법원 통역가 린쥬산(林久三)이 1914년에 쓴 『(재판) 타이완요리치침서(再版臺灣料理之棗)』 속 타이완 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게 되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고 연대하며 성장한다. 양쌍쯔는 남성 인물의 등장을 배제하고 각기 다른 민족과

계층의 배경을 지닌 여성들의 식사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고 타인과 진실로 교류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그러면서 ‘쓰웨이가 1번지’와 ‘백여 년 전의 요리책’이라는 식민 시대의 유산이 현재의 일상적 공간에 어떻게 잔류할 수 있는지, 다종다양한 사람들의 일상의 결이 어떻게 묶이고 섞일 수 있는지를 고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쓰웨이가 1번지』는 타이완의 동시대 역사 관념 및 여성이 처한 사회적 상황, 동성에 문화 코드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유효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역사와 공간, 음식과 여성 연대를 중심으로 소설의 서사를 보다 분석하고 양상쯔의 문학적 맥락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여성들의 대화로 걸어 올리는 타이완의 과거

역사는 항상 과거의 일을 기록한다는 전제하에 성립해 왔다. 그리고 과거를 기록하는 주체가 누구였는가, 어떤 일을 기록하고 배제했는가에 관해 사유했을 때 역사 서술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타이완 문학사에서 역사 서술은 일본 식민 시기와 국민당 집권기, 집단 권력에 저항한 시간 등 굵직한 대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사의 주인공은 대부분 남성이었고 여성은 역사 서술의 배경 혹은 남성 중심 서사의 조연으로 머무르는 데 그쳤다.

양상쯔의 소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특별함과 참신성을 내재한다. 그녀는 『꽃 피는 시절(花開時節)』(2017)과 『1938 타이완 여행기』를 거쳐 『쓰웨이가 1번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여성들 사이의 감정 교류와 연대, 일상의 서술을 그려왔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문학 세계에 관해 양상쯔는 역사에 기반한 ‘역사 백합(歷史百合)’ 장르라 일컫는다. 역사와 백합 장르가 결합한 소설이라는 것이다. 먼저, 역사소설에 관한 일반적 인식은 과거를 소재로 삼는 소설이라는 것이다. 역사소설은 배경으로 삼은 시대의 정치와 경제, 사

회적 사건 및 문화적 환경을 다루게 되고 이를 문학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작가만의 방식으로 재설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대의 특수성 및 보편성을 전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의 가치 또한 지닐 수 있다. 류슈메이는 『50년간의 타이완 통속소설』에서 역사소설이 역사적 사실성과 소설의 허구성을 모두 지녀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역사의 성분으로 말하자면, 역사소설은 통상적으로 역사적 사실, 특히 중대한 역사적 사실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삼는다. 중대한 역사적 사실은 통상적으로 독자가 이미 들어보았거나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역사소설이 통속적 특성을 지니게 되는 원인 중 하나다. 소설의 성분으로 말하자면, 역사소설은 일반 소설의 서사적 특징을 갖추어야 하며, 즉 일부 인물들을 플롯 안에 배치해 문학적 언어로 완전한 역사 이야기를 구축해야 한다……역사소설은 작품 속 인물과 플롯에 허구적 요소를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허구의 창조가 사실에 근접하는 효과와 충돌해서는 안 되며, 즉 역사적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월해서는 안 된다.¹⁾

류슈메이의 견해는 사실상 역사소설이 역사적 정보와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백합(百合)’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들어 창간된 일본의 남성 동성애 잡지 『장미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성 동성애를 상징하는 ‘장미’라는 단어에 대응하여 ‘백합’이 여성 동성애를 가리키는 은어로 자리 잡았으며, 1980년대에는 ‘세라북 백합족’, ‘OL 백합족’ 등 ‘백합족’을 제목으로 내건 이성애 남성 소비층을 겨냥하여 여성 간성애를 소재로 일본 포르노 영화들이 쏟아졌다. 2000년대 초중반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라이트 노벨 등에서 여성들, 특히 십대 여학생들 사이의 우정과 애정을 다룬 대중오락물이 제작되고, 1997년 연재를 시작한 소녀 소설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가 일본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둔 후 『백합자매』, 『백

1) 劉秀美, 『五十年來的台灣通俗小說』, 台北: 文津出版, 2001.11, p. 213, 許貽晴, 「百合少女與歷史轉譯: 楊双子 〈花開時節〉系列小說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文學院臺灣語文學系碩士論文, 2021, p. 13에서 재인용

합공주』, 『백합천국』 등의 일본 만화 잡지가 연이어 창간되며 백합은 하나의 장르로 정착되었다.²⁾ 이후 백합 포르노물이건, 만화 잡지건 두 경우 모두 여성 사이 애정과 성적 욕망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백합’은 점차 ‘레즈비언’, ‘GL(Girls’ Love)’과 사실상 유사한 의미망 안에 놓이게 되었고, 2000년대 후 인터넷의 전면적 보급과 더불어 일본 애니메이션 서브컬처가 각종 미디어의 상업적 유통망을 통해 타이완을 포함한 중화권으로 퍼지며 ‘백합’의 의미는 한층 더 확장된다. 여성 동성애라는 혐의에서 벗어나 여성들 사이 우정과 애정의 제 양상을 두루 포괄하는 광의의 Girls’ Love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서는 ‘백합’이 현재의 여성 동성애 개념보다 백 년 전의 ‘동성연애’ 개념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당시의 동성연애는 여학생들 사이의 열렬한 관계를 일컬을 때 사용되었다고³⁾ 언급했다. 이서는 1916년에 출판된 일본 작가 요시야 노부코의 『꽃 이야기』를 백합물의 기원으로 보았다. 『꽃 이야기』를 비롯한 요시야 노부코의 작품들이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소설 속의 소녀들이 동경과 사랑을 보내는 대상은 모두 또래 소녀나 여선생님이었다. 요시야 노부코 뿐만 아니라 1910년대 많은 일본 여성 작가의 작품들이 여학교 동성 로맨스를 다루고 있었고 『소녀화보』와 같은 잡지들에 실린 소설들 또한 여학생 간 로맨스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이러한 소설들은 ‘S 소설’이라고 불렸는데 ‘S’는 여학생 선후배 둘 간의 강렬한 유대 관계를 일컫는 단어였다. 게다가 1920-30년대 중국에서도 ‘여성 동성애 학교 로맨스’ 소설은 통속문학의 한 장르로 떠올랐음을 거론하며 중국의 대표적 여성 문인인 루인, 링수화, 덩링의 작품에서 백합물과 유사한 관계가 등장했다고 했다.⁴⁾ 이와 같은 백합물의 역사적 연원과 특성은 양왕쯔의 소설에도 녹아 있다. 양왕쯔는 자신의 역사백합소설은 여성 인물들의 관계와 상호 영향을 집중적으로 묘사한 장르라 말했다.⁵⁾ 그녀의 역사백합소설이 역사소설과 구별

2) 이서, ‘언니 저 달나라로: 백합물과 1910-30년대 동북아시아 여학생 문화.’ 『베라: 퀴어인문잡지』 제1권, 2012, p. 142 참조

3) 주2)의 글, p. 143 참조

4) 주2)의 글, pp. 144-146 참조

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서술의 출발점에 있다. 그녀는 기존의 역사소설이 대체로 국족적, 정치적이고 강인한 남성 중심의 서사를 추구해 오며 (배제해 온) 개인적, 서민적이고 유연한 여성 중심의 역사를 서술하며 오락성을 지닌 소설로 표현한 것이라 했다.⁶⁾ 쉬이칭은 양왕쯔의 소설 속 여성 인물은 나이와 출신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결혼으로 인한 정체성 변화를 겪기 전이며,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정의 일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했다. 이 소녀들은 정의하는 것을 유보하거나 재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주체들로 서로의 감정과 의지가 공명하는 백합 관계를 통해 기성 가치관에 균열을 내는 인물들이라 했다.⁷⁾

양왕쯔의 소설에서 여성들은 상호 영향과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타자의 성적 정체성의 스펙트럼을 폭넓게 허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녀들은 과거의 시간 속에 있거나(『1938 타이완 여행기』의 아오야마 치즈코와 왕첸허의 경우), 과거와 현재를 오가거나(『꽃 피는 시절』의 양쉐니와 양싱이의 경우),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는(『쓰웨이가 1번지』의 여성 대학원생들의 경우) 방식으로 자아와의 접점이 있는 과거의 시간을 길어 올리며 새로운 역사를 소환한다. 여성들이 역사를 다르게 소환하는 작업은 과거와 현재를 살아 있는 방식으로 연결하며 이러한 역사 서술 방식을 통해 정팡팅(鄭芳婷)은 퀴어 시간성(Queer Temporality)이 생성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퀴어(queer)’는 이분법적 성별 체계와 이성애 규범성에 포괄적으로 저항하는 정치적 입장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레즈비언·게이·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정체성과 젠더 표

5) “‘지엘’(GL-Girl’s Love)은 여성 간 로맨스에 초점을 맞춘다. 웹소설 위주다. ‘레즈비언 문학’은 레즈비언과 사회관계에 주목한다. 친퀘가 이 경우다. 난 백합 소설이다. 주요 인물 둘이 여성이고 그들 관계와 상호 영향에 더 집중하는데 이성애자일 수도 있고 (정체성 등에서) 훨씬 복잡하다. 복합 장르가 가능해지는데, 역사에 기반한 ‘역사 백합 소설가’는 저뿐만 것 같다.” 임인택, 「식민지 역사와 레즈비언 서사 엮은 양왕쯔... ‘판 혼 드는 주변부’ 대만 문학의 색다른 증거」, 『한겨레』, 2025.06.24.,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204410.html> (검색일: 2026.03.05.)

6) 주1)의 許貽晴의 논문, p. 20 참조

7) 주1)의 許貽晴의 논문, p. 21 참조

현을 아우르는 광의의 용어다. 따라서 ‘퀴어’는 ‘동성애’와 동의어가 아니며, 어느 한쪽의 성적 지향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 ‘퀴어’는 이성애 규범성과 성별 이분법이 강요하는 고정된 정체성을 교란하는 감수성과 서사 전략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퀴어 시간성’은 이성애 중심의 선형적 시간 서사에 포섭되지 않는 삶의 시간성을 의미하며, 양상쯔의 서사는 과거에 일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일을 이루도록 한다. 『쓰웨이가 1번지』의 퀴어 시간성은 가부장제 서사 바깥에서, 결혼 제도와 이성애 규범 세계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일상적 시간으로 형상화된다.⁸⁾

이 같은 양상쯔의 역사백합소설은 타이완 문학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그것은 역사란 기념비적인 사건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층적 일상의 지평 위에 존재함을 증명하는 시도로 페미니즘적 역사 다시 쓰기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이성애 규범적 시간 서사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퀴어적 실천이기도 하다. 이 두 지향은 『쓰웨이가 1번지』에서 서로를 경유하며 작동하되, 어느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다.

3. 적산가옥의 재전유 - 『쓰웨이가 1번지』의 공간과 역사의 재구성

『쓰웨이가 1번지』의 다섯 명의 여성이 모여 사는 세어하우스는 타이중에 현존하는 오래된 일본 가옥에서 소재를 취한 것이다. 1938년에 만들어진 이 가옥은 현재 타이중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케이스의 집을 ‘적산가옥’이라 일컫는다. ‘적산가옥(敵産家屋)’은 적의 재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한국과 타이완에 지어진 주택이다. 식민지 시대

8) 林明怡, 「夏季閱讀講座—集結, 千禧世代作家新世代作家圖像以文學鼓舞人心, 認識臺灣文學璀璨之星」, 『國家圖書館館訊』, 2020.11, pp. 13-14 참조

에 지어진 건축물은 단순히 물리적 구조물로만 간주하기 어렵다. 식민 권력의 질서에 따라 피식민지의 공간을 위계화하고 구조화한 작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홍렬은 일제강점기 일본은 표준화된 건축 모델을 관립시설을 건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상상의 식민지 공동체라는 심상지리 의식을 일상 곳곳으로부터 배어 나오도록 했으며, 그것은 현재까지 근대 건축 유산이라는 명목하에 남아 우리의 탈식민지적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⁹⁾ 피식민지 공간에 지어진 총독부, 은행, 세관, 법원 등과 같은 관립 건축물들은 식민 권력의 권위와 문명의 위계를 상징하며 피식민자들이 통제와 관리의 논리를 수시로 체감하도록 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이에 식민시기 건축물의 존속과 철거는 종종 민족적 기억의 정치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1995~1996년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에서 수행된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는 건축물에 내재한 상징적 규정성, 즉 식민 지배라는 특정한 의미를 제거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¹⁰⁾ 그런데 양상쯔는 식민시기 건축물 철거는 겹겹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그다지 풀기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타이완에서 만약 한국처럼 한다면, 제일 먼저 철거해야 할 건물은 총통부(總統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총통부 철거는 현재 타이완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 지금 거론하는 총통부의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 총통부(中華民國總統府)’이다. 전신은 일본 제국의 ‘타이완 총독부(臺灣總督府)’로, 이 건물은 정체성이 삼중으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풀기가 쉽지 않다. ‘타이완 총통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완의 역사적 건물은 대부분 이처럼 식민지 이후의 문제를 품고 있다...¹¹⁾

이에 양상쯔는 『쓰웨이가 1번지』의 적산가옥을 규정적 공간이 아닌 중층

9) 이홍렬, 「건축을 매개로 한 상상의 문화적 기억 공간 - 탈식민시대 대한민국의 일제 식민지 근대 건축문화 유산 - 」, 『日本近代學研究』 제71집, 2021.2, p. 218 참조

10) 주9)의 논문, p. 215 참조

11) 양상쯔, 윤지산 역, 『쓰웨이가 1번지』, 마르코폴로, 2025.6, pp. 7-8

적 상징을 지닌 장소로 묘사한다. 작가는 “일상적 시각에서 ‘전후 타이완’이 어떻게 ‘현재 타이완’으로 이어졌는가를 사유” 하고 또 “일본 제국의 자산이 전후 사유 재산이 되면서, 젊은 여성 다섯 명이 이 집에 살면 어떻게 생활할까? 현실과 다른 평행 세계를 상상”¹²⁾하며 소설의 공간을 만들었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타이완에 남아 있든, 미국을 가든, 세계 어디로 가든, 너 안슈셴은 어디로 가든 안슈셴이지!”
 “그렇지 않아. 어떤 사람은 어딜 가든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어.”¹³⁾

이처럼 작가는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정체성과 자신이 설정한 자기 정체성 문제를 집의 역사를 겹쳐 놓으며 식민의 흔적이 깃든 공간을 규정적 기억의 궤도로부터 탈피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일상적 시간이 펼쳐질 수 있는 장소로 재현하며 쓰웨이가 1번지를 공간을 나누는 이들의 감정과 언어, 관계의 양상을 담은 그릇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쓰웨이가 1번지라는 세어하우스의 물질적 조건은 서사를 완성하는 핵심적 요소다. 100년 가까이 된 낡고 오래된 적산가옥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능동적으로 서사 구성에 개입하여 이 집을 거쳐 간 자들의 시간은 축적하고 또 현재화한다. 1914년에 재판된 타이완 요리책이 현재까지 보존되다 음식으로 부활하는 장면들이 곧 이에 해당하며, ‘공간이 어떻게 시대를 담고 현실에서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가’라는 작가의 핵심적인 물음은 바로 이 같은 서술 방식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쓰웨이가 1번지의 낡고 오래된 결핍이 아닌 풍요를 의미하며 이 공간이 단일한 정체성으로 고정되지 않음을 상징한다. 식민시기에 지어졌기에 그 시대의 공기와 논리만을 담아내는 것이 아닌, 지어진 이후로 공간에 머물렀을 존재들의 시간을 역사의 수면 위로 드러내려 하는 작가의 태도는 쓰웨이가 1번지에서 귀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인물들의 언행을 통해서도 서술된다.

12) 『쓰웨이가 1번지』, p. 8

13) 『쓰웨이가 1번지』, p. 241

만약 누가 이쪽으로 걸어온다면,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 오는 것이 틀림없다. 쓰웨이가 1번지에서 자기 방에 놀러 올 사람이 있던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이원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쓰웨이가 1번지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¹⁴⁾

“요즘 제가 샤워할 때, 제가 노래 부르면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길 가는 이웃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삼 일 연속 그러는 거예요...중략... 제가 ‘너 도대체 누구야’라고 크게 불렀는데, 그 이후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아마도 쓰웨이가 1번지의 지박령(地縛靈) 같아요.”¹⁵⁾

이처럼 샤오나이원과 쉬자화, 루샤오펡은 쓰웨이가 1번지에 귀신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마치 지박령처럼 이 집에서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자 하는 ‘귀신=유령스러움(ghostliness)’은 현재에 남아 있는 ‘기억되지 못한’ 역사의 흔적을 떠올린다. 에이버리 F. 고든(Avery F. Gordon)은 『유령적인 사건들 유령의 출몰과 사회학적 공상의 산물』이라는 저서에서 비가시적 존재인 유령에 대해 논했다. 그는 ‘유령스러움’을 현재에 남아 있는 기억되지 못한 과거의 흔적으로 정의하고, 가시적인 것은 언제나 권력 구조에 의해 보여지는 것으로 이 ‘가시성(visibility)’에 관해 의식할 것을 주장했다.¹⁶⁾ 유령은 지배 구조와 관습, 주류적 관점에 의해 희생되어 지워진 존재의 흔적이다. 소설 속에서 귀신을 느끼는 인물들의 행위와 심리는 역사에서 삭제된 채 희미해진 존재의 궤적을 따라가며 억압되고 은폐된 문제를 현재로 불러들임은 유한다. 그리고 이 같은 서술을 통해 『쓰웨이가 1번지』는 현재를 구성하는 것들에 관해 재고하고 기존의 사유 구조에 관한 성찰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소설 속의 공간은 또 다른 차원의 기억과 사유를 견인하는 매개체로 상정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식민시기에 세워진 건축물 즉, 규정적인 공

14) 『쓰웨이가 1번지』, pp. 41-42

15) 『쓰웨이가 1번지』, p. 127

16) 노희호, 「한강 소설 속 유령의 형상과 기능 - 「눈 한송이가 녹는 동안」(2015), 「작별」(2018), 「작별하지 않는다」(2021)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93호, 2022.9, pp. 208-209 참조

간은 집단의 기억을 식민 권력의 방향으로 향하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피식민자들에게 이 공간은 이미 특정한 기억과 정체성을 강요하는 곳으로 기능한다. 그렇지만 쓰웨이가 1번지는 규정적 공간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려 애쓰며 적산가옥을 식민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공간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의 시간이 펼쳐지고 쌓이는 장소로 재구성한다. 인물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양상과 유동적 정체성을 따라 담지 않았던 시간을 재현하며 『쓰웨이가 1번지』는 적산가옥을 재전유(reappropriation)한다. 이 재전유의 핵심은 공간을 둘러싼 역사의 흔적들을 삭제한 단일성의 장소로 구성하는 것이 아닌, 흔적들을 더듬어가며 다양한 결의 시간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대단한 선언 혹은 공식적 행사뿐만 아니라 매일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소하고 비정치적인 순간들을 서사의 시간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안슈이(安修儀)가 쓰웨이가 1번지의 집주인이 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집의 역사—그녀와 함께 자라며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촌 안슈센(安修賢)이 암으로 죽은 뒤 사실은 할아버지의 사생아였다는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것, 타이완 총독부 초대소로 신축해 타이중 주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기숙사로 또 가족들의 사택으로 전쟁이 끝난 후에는 중화민국의 국군이 몰수해 장교 기숙사로 사용하다 군우사(軍友社)에게 양도한 것을 안씨 집안에서 매입한 것, 사실상 안슈이의 할아버지가 국가 재산을 사유화하며 지금의 쓰웨이가 1번지로 남게 된 것, 죽기 전 이 집을 세어하우스로 운영하려던 안슈센의 계획을 안슈이가 이어가게 된 것—은 개인의 역사와 공간의 역사가 교차하는 면면을 의미한다. 이에 쓰웨이가 1번지는 억압과 지배의 이데올로기를 품어내는 식민시기의 유물이기 전에 이 집을 거쳐 간 자들의 삶이 누적된 공간이며 현재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은 그렇게 쌓인 시간을 현실로 불러내는 매개자이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식민자가 피지배자를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며 공간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상상하는 ‘심상지리(心象地理, imagined geographies)’에 관해 논한 바 있다. 『쓰웨이가 1번지』의 공간은 바로 이 심상지리를 전복한

다. 일제가 만든 적산가옥은 더는 식민의 심상지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공동 거주와 일상적 교감을 통해 공간에 대한 상상은 공유되며 심상지리 또한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14년의 타이완 요리책의 발견은 과거가 현재에 말을 걸어움을 상징하며 여성들이 레시피에 기대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 시간을 쌓아가는 것은 과거에 응답함을 의미한다. 이 쌍방향의 흐름 속에서 쓰웨이가 1번지라는 공간은 고정된 역사로부터 해방되며, 이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 사이 끊임없는 대화라 정의한 E. H. 카의 논의와도 공명한다.¹⁷⁾

4. 일상의 감각으로 쓰는 퀴어 서사: 음식과 여성 연대

여성 동성애 장르는 그간 퀴어 문학의 장 안에서는 소수 장르였다. BL(Boy's Love) 장르가 서브컬처 영역에서 높은 점유율을 지니는 데 반해 “여성 간 로맨스를 다룬 GL은 시장 규모가 작고, 마이너한 문화로 여겨”¹⁸⁾져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동아시아에 불어닥친 페미니즘 대중화 현상과 더불어 다양한 여성 서사를 향한 대중들의 요구가 높아지며 여성 동성애 장르는 이전의 지위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독자층에서 수용되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초기의 백합 서사는 여학교와 같은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녀들의 순수하고 친밀한 관계성에 관한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허윤은 이러한 “여학생 사이의 동성애는 남성들과의 성적 접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다 너그럽게 용인되기도 하였고, 일본에서는 “여성들 사이의 동성애가 여성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며, 정서와 인격의 발달을 가져오

17) E. H. 카, 김택현 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글방, 2015, 주 10)의 논문 p. 215에서 재인용

18) 허윤,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의 여성 간 로맨스」, 『대중서사연구』 제26권 4호, 2020.4, p. 187

고, 남학생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하는 등 이로운 것”이라는 19) 차원에서 받아들여져 왔음에 관해 지적했다. 여성 사이의 사랑을 섹슈얼리티를 해치지 않는 안전하고 순수한 애정으로 순화함으로써 이성애 규범성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허용한 것이었다. 백합물은 오랫동안 퀴어 장르로서의 급진성을 발현하기보다 이성애 세계 내부에서 위협하지 않은 우정으로 존재해 온 것이다. 이러한 ‘백합물의 억압’을 타이완 퀴어 서사의 장에 대비해보면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이완 퀴어 문학의 대표작가로 일컬어지는 지다웨이(紀大偉)는 SF 장르를 활용하여 이성애 중심의 성별 규범을 비판하고 성 소수자의 삶을 수면 위로 드러냈는데 소설 「막(膜)」(1996)은 2100년의 해저 도시를 배경으로 인간과 안드로이드가 결합한 ‘포스트 휴먼’ 존재를 통해 고정적 성 정체성의 허구를 고발한 작품이다. 이러한 지다웨이의 문학은 그동안 동성애자를 죄의식을 지닌 존재 및 몹쓸 병에 걸린 희생자로 묘사하던 관습적 묘사를 깨뜨리며 성 소수자의 이미지를 재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장르로 우회해 재현한 퀴어 서사는 한계를 내포하기도 쉽다. 퀴어 존재를 미래의 시공간에서 기계와 결합한 ‘이탈하고 변형적인’ 장치를 통과하여 서사화한 것은 소수자의 삶을 현실에서 분리된 특이한 것으로 구성했다는 비판적 논의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소수자의 욕망과 연대가 특수한 상상적 시공간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재현될 때, 퀴어의 삶은 보편적 현실 바깥의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상쯔가 구성한 퀴어의 세계는 주목할 만한 전환점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쓰웨이가 1번지』의 무대는 현재에도 존재하는 타이중 서구의 낡은 가옥이며 이 공간은 타이완의 식민과 탈식민의 역사, 정체성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여기서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을 지닌 인문학을 공부하는 여성 대학원생들—내성적이고 예리한 샤오나이윈(蕭乃雲), 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쉬자화(徐家樺), 세어하우스에서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외유내강형 루샤오핑(盧小鳳), 세상사에 무관심하며 글 쓰는 재능

19) 주18)의 논문, p. 192

을 지닌 귀즈이(郭知衣)과 비밀 같은 역사를 간직한 집주인 안슈이의 삶이 어우러진다. 『쓰웨이가 1번지』의 인물 구성은 단순한 서사적 장치가 아닌, 정체성의 가소성을 지닌 존재들의 상주를 통해 기성 세계의 가치관과 담론에 균열을 내며 그 틈새로 백합의 감정이 파고들게 한다. 서로 다른 여성 캐릭터의 어우러짐 속에서 개별적 존재는 이성애적 연애 제도를 넘어서며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요리책을 발견하는 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집에서 『(재판) 타이완 요리 지침서』를 처음 발견한 샤오나이윈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이 책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그러다 책의 레시피를 따라 요리를 만들어 구성원들과 나눠 먹으며 긴장감을 상쇄해간다. 더하여 밥값을 아끼려 홀로 밥을 먹으려 하는 쉬자화와 요리를 나눠 먹으며 샤오나이윈은 그녀의 생계로 인한 피로감을 덜어주려고 한다. 요리책을 통해 현재에서 다시 살아나는 토란국, 닭구이, 전병 등은 식민지 시기의 타이완 요리를 현실적으로 소환하는 것이다. 이신조는 데버러 럽턴의 논의를 빌려 음식을 먹는 행위는 단지 생존의 차원에만 국한되는 행위가 아니며 “‘음식 습관과 음식 선호’를 통해 주체성의 축을 형성하고 지탱하는 ‘자아의 중심적 관행’으로 자리 잡으며, ‘먹는다’는 행위는 생존의 영역에 포함되지만, ‘무엇을 먹는가’, ‘어떻게 먹는가’, ‘왜 그것을 그렇게 먹는가’ 등의 의미와 양상은 실존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철학적 문제”라 주장했다.²⁰⁾ 이러한 논의에 기대면 백여 년 전의 요리 방법을 현재에서 구현하는 행위는 음식이 시간을 물질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1912년에서 2019년까지, 이 책을 출간했던 시대와 나이윈이 사는 시대,
이 두 시대에는 약 백 년의 시간적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 ‘시간적 거리’라는 것에 나이윈은 이미 익숙하다.
인간의 삶보다 문헌이 훨씬 단순하다.

20) 이신조, 「한국소설에 나타난 음식 모티프와 가족 관계의 의미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7집, 2020.9, pp. 111-112

손 가는 대로 책을 넘기다 40쪽에서 멈춘다. ‘위니경(芋泥羹=토란국)’. 위니경? 「진분/갈분 소스 없는 요리(あんかけ)」 항목에 나온다. 하지만 이런 국은 처음 듣는다. 재료는 다음과 같다. …중략…

백 년에 걸쳐 품종이 개량되었으니, 명칭은 ‘토란’으로 같더라도 백 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시장에 널린 품종은 ‘빈랑심우(檳榔心芋)’로, 산지는 타이중다자(臺中大甲), 마오리(苗栗) 공관, 가오슝자셴(高雄甲仙), 동해안 화롄(花蓮)에서 외딴 섬 진먼(金門)까지 다양했다. 백 년 전 품종은 구하지 못했다. …중략…

아직 모락모락 김이 나는 ‘위니’를 흰 접시에 담는다. 회색과 보라색을 띠면서 천천히 퍼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백 년 전 사람들이 왜 이 요리를 ‘위니경’이라고 불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²¹⁾

과거와 현재를 신체적, 감각적 차원에서 연결하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먹는 행위는 재현과 나눔의 차원을 넘어 식민지 시기 형성된 타이완의 문화적 정체성과 상실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들이는 역사적 협상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양상쓰는 다른 작품들에서 과거를 직접적 문학적 배경으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쓰웨이가 1번지』에서는 지금의 타이완이라는 시공간 속으로 역사를 소환한다. 과거로 미끄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공간이라는 일상의 매개를 통해 과거가 현재와 함께 숨 쉬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들 사이의 일상적 대화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 현재를 위해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행위로 거듭난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시간, 즉 삶의 세밀한 곁을 공유하는 여성들의 행위를 촘촘히 묘사함으로써 소설은 공식 역사가 지워온 공백을 드러낸다. 코니한은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은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단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이자, “‘우리’의 증거가 되었고”, “사회적 단결을 강화”하는 행위이기에 “음식 나누어 먹기를 거부하는 것은 적의와 적개심의 표시”라 했다.²²⁾

“계란 감자 샐러드 재료도 제게 다 있어요. 제가 만들게요. 나이원한테

21) 『쓰웨이가 1번지』, pp. 57-59

22) 주20)의 논문, p. 126 참조

가게부 쓰는 법 배워서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직 많지는 않지만, 밥 한 끼 정도는 이제 괜찮아요.”
 자자는 기분이 좋았고, 말하는 사이에 나이원에게 링크 날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중략...
 아, 정말 좋다. 샤오핑은 이 순간이 봄바람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찰나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쓰웨이가 1번지의 마법이다. 샤오핑은 이 마법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샤오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자와 나이원은 이 마법이 펼쳐지는 순간을 함께 경험한 것이었다.²³⁾

식사 중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언어적·비언어적 소통과 감정의 나눔이 하나로 묶이는 식탁에서 여성들 사이의 연대는 조금씩 두터워진다. 음식을 둘러싼 행위는 “주체성을 형성하는 자아의 중심적 관행”이자²⁴⁾ 인간의 내면 형성에 깊이 관여하는 행위로서 『쓰웨이가 1번지』의 식사는 각 인물이 자신에 관해 더욱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타인의 사정에 공감하는 통로로 묘사된다. 여성들은 요리책의 레시피를 재현하며 상대가 좋아하고 두려워하는 것, 곤란한 상황은 어떤 연유로 발생하는지를 언어 이전의 감각적 차원에서 이미 알아차린다. 여성들의 비밀과 상처, 욕망이 드러나는 것은 이 같은 감각적 공명의 순간들에 의해서이다.

이에 『쓰웨이가 1번지』의 여성 연대는 개인의 고독과 내면의 결핍을 함께 음식을 만들고 먹는 공동의 감각적 경험으로부터 이뤄진다. 이것은 그간 여성 동성에 서사에서 흔히 보이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생존하거나 혹은 가부장제의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을 통과하며 여성이 거듭나는 것이 아닌 보다 일상적이고 유연한 방식의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양창쓰는 여성들이 공존의 언어로 말하고 연대의 감수성을 키워나가며 성장하는 과정을 묘사했다. 이 성장은 극적이고 특별한 사건을 통해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아닌 함께 먹으며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의 축적을 통해 스며들 듯이 이뤄진다. 그

23) 『쓰웨이가 1번지』, p. 123

24) 주20)의 논문, p. 111

렇게 『쓰웨이가 1번지』는 오랫동안 여성들 간 우정에 가까운 애정과 친밀한 관계성을 위협하지 않은 소녀적 감수성으로 갈음해 온 백합 서사의 문법을 넘어선다. 이 소설은 여성들의 퀴어적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 특이한 환경이나 성애 묘사 같은 장치를 동원하지 않는다. 동성애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물에게 비극적 결말을 부여했던 기존 퀴어 서사와는 달리 『쓰웨이가 1번지』는 여성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친밀함과 욕망을 별다른 해명 없이 일반적인 세계의 한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포함한다. 음식을 만들고 먹는 지극히 일상적인 시간이 퀴어 욕망의 서사적 토대가 될 때, 독자는 그 욕망을 특별하거나 예외적이지 않은 자신의 삶과 연접한 보편적인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5. 백합으로 역사를 다시 쓰기

『쓰웨이가 1번지』에는 남성 인물이 부재한다. 이는 단순히 여성을 부각하기 위한 기술적 결정을 넘어, 남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던 기존 여성 서사의 문법을 해체하는 전략이다. 다수의 매체에서 여성 인물은 어머니·아내·딸·연인으로서 남성의 관계 향으로 존재해 왔으며, 이는 여성을 서사의 보조자로 환원하여 개인의 복잡한 심리와 여성들 간 관계의 역동성을 비가시화했다. 반면 『쓰웨이가 1번지』의 여성들은 남성 없는 공간에서 다양한 관계 맺음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발견하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관계성은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샤오나이윈이 요리책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 쉬자화와 나누고, 쉬자화가 그 진심을 이해하며 가난에 대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루샤오핑이 귀즈이를 돌보고 귀즈이가 루샤오핑의 부재를 통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지하는 것, 안슈이가 안슈센의 과거 선택을 비로소 이해하고 그녀의 삶의 태도를 자기 일상으로 견인해오는 것처럼, 타인의 고뇌와 상처를 감지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연대의 순간들이 발생한다.

이렇듯 양상쯔는 개인이 자기 정체성을 특정한 방향으로 확정하는 것을 유예하며 여성들 사이의 관계성을 그려내는 퀴어적 감수성을 선보인다. 따라서 『쓰웨이가 1번지』 속 여성들의 관계가 우정인지 사랑인지를 묻는 것은 이 소설의 본령을 간파하는 데 유효한 질문이 아니다. 기존의 퀴어 서사가 이성애 규범성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드러내거나 동성애적 성애를 도드라지게 묘사했다면, 『쓰웨이가 1번지』의 여성들은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말을 걸고 화답하는 시간 속에서 관계성을 생성한다. 이러한 관계성은 저항보다 공존의 언어로, 극적 사건보다 반복되는 일상의 축적으로 두터워지며, 그 유동적 시간은 인물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소설의 구성 형식과 관련해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은 제기될 수 있다. 『쓰웨이가 1번지』의 인물 구성이 ‘인문학을 전공하는 여성 대학원생들’이라는 동질성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교육적 배경과 세대를 공유하는 여성들의 유대는 출발점부터 마찰이 비교적 완만한 안전함을 전제하며, 이로 인해 전혀 다른 삶의 조건을 지닌 인물들이 빚어낼 수 있는 갈등과 화해의 긴장성은 제한될 수 있다. 그렇지만 양상쯔는 동질적 집단 내부에서도 개인이 인내하고 저항해야 하는 문제는 결코 균질할 수 없음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개인의 고통과 상처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침묵하거나 발화되며, 작가는 그 미세한 틈과 차이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원에서 『쓰웨이가 1번지』는 역사와 백합 장르가 세련된 형태로 결합한 결실이다. 작가는 장르적 층위에서는 공간과 음식 같은 일상을 역사 서술의 언어로 설정하고, 젠더적 층위에서는 여성들 사이의 연대와 개인의 성장을 통해 남성 중심 역사 서술과 이성애 규범성이 억압해온 여성의 경험을 복원한다. 2019년 동성혼 합법화 이후 타이완 사회가 발전시켜온 퀴어 문화와 젠더 담론의 맥락에서, 『쓰웨이가 1번지』는 제도와 법률이 아닌 일상의 언어와 감각으로 백합적 삶의 '비범하지 않음'을 발화하며 타이완 젠더 담론을 한층 풍부하게 만든다.

양상쯔의 역사백합 서사는 존재했으나 침묵을 강요당한 여성의 이야기를 상상적 실천으로 재현하는 작업이다. 역사적 공간에서 여성들이 음식과 대화

를 나누는 백합적 연대는 공식 역사가 삭제한 여성들의 삶을 복원하고, 여성 스스로 자기의 역사를 서술할 수 있음을 문학의 언어로 증명한다.

參考文獻

- 楊双子, 『四維街一號』, 春山出版, 2023.
- 양상쯔, 윤지산 역, 『쓰웨이가 1번지』, 마르코폴로, 2025.
-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마르크스의 유령들』, 그린비, 2014.
- E. H. 카, 김택현 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글방, 2015.
- 이서, '언니 저 달나라로: 백합물과 1910-30년대 동북아시아 여학생 문화', 『빼라: 퀴어인문잡지』 제1권, 노트인비트윈, 2012.
- 許貽晴, 「百合少女與歷史轉譯: 楊双子 〈花開時節〉系列小說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文學院臺灣語文學系 碩士論文, 2021.
- 노희호, 「한강 소설 속 유령의 형상과 기능 - 「눈 한송이가 녹는 동안」(2015), 「작별」(2018), 『작별하지 않는다』(2021)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93호, 2022.9.
- 이신조, 「한국소설에 나타난 음식 모티프와 가족 관계의 의미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7집, 2020.9.
- 이홍렬, 「건축을 매개로 한 상상의 문화적 기억 공간 - 탈식민시대 대한민국의 일제 식민지 근대 건축문화 유산 -」, 『日本近代學研究』 제71집, 2021.2.
- 허윤,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의 여성 간 로맨스」, 『대중서사연구』 제26권 4호, 2020.4.
- 林明怡, 「夏季閱讀講座—集結, 千禧世代作家新世代作家圖像以文學鼓舞人心, 認識臺灣文學璀璨之星」, 『國家圖書館館訊』, 2020.11.
- 임인택, 「식민지 역사와 레즈비언 서사 엮은 양상쯔... '관 흔드는 주변부' 대만 문학의 색다른 증거」, 『한겨레』, 2025.06.24.,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204410.html>

Abstract

Women Who Eat Together and Grow Together

— Space, Food, Yuri Narrative, and Rewriting History in *No. 1, Siwei Street*

Jin, Sung Hee

Taiwan author Yang Shuangzi's(楊双子) novel *No. 1, Siwei Street*(四維街一號, 2023) is set in a Japanese colonial-era house and follows women graduate students from different backgrounds who recreate recipes from a century-old cookbook, forging solidarity and growth in the process. The novel demonstrates how a space bearing the remnants of colonial rule is reappropriated as an open space through multilayered communication among women, and how the act of cooking and sharing food transcends the everyday to become a form of historical negotiation that connects the cultural memory of colonial-era Taiwan to the present.

Furthermore, *No. 1, Siwei Street* foregoes the conventional grammar of queer narratives that resist heteronormativity, instead rendering fluid relationships among women through an accumulation of solidarity built on the sharing of space and food — a sensibility characteristic of the *yuri* genre. In doing so, the novel achieves a literary feat: by bringing together history and the *yuri* genre, it recovers the lives of women rendered invisible by male-centered and heteronormative historical accounts.

Key words : Yang Shuangzi(楊双子), *No. 1, Siwei Street*(四維街一號), space, food, solidarity among women, yuri(百合), rewriting history

투 고 일 : 2026. 4. 10. / 심 사 일 : 2026. 4. 15.~ 2026. 5. 15. / 게재확정일 : 2026. 5. 20.